“현대차 GBC · 영동대로 개발, 협치 필요”

GBC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재심의 결정에
봉은사대책위, 대규모 난개발 재검토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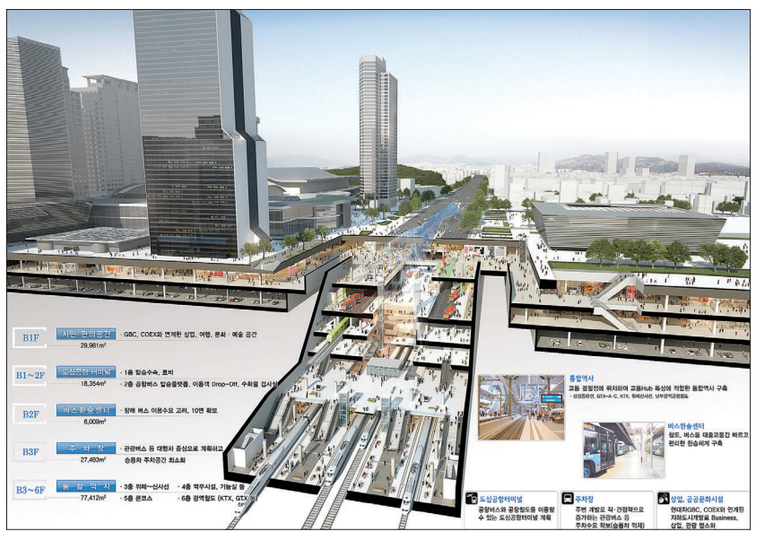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초고층 신사옥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건립사업이 5월 29일 열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 재심의 결정을 받아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일조권 · 조망권 · 미세먼지 등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봉은사 대책위는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대규모 난개발 재검토를 촉구했다.

봉은사역사문화환경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 · 원명)는 6월 13일 서울시 재심의 결정에 따른 환영논평을 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천년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환경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1년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사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불과 258m 떨어진 봉은사에 대한 문화재영향평가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서울시 결정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환경영향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동대로 지하 개발은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에 이르는 지하 광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으로, 1조2389억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지하 950m구간에 지하6층 51m, 폭 70m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로써 환경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책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서울시 주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청회에 참가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인 교수(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는 6월 14일 배포한 기고문을 통해 현대차 GBC · 영동대로 개발에 협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서울시 “환경문제 보완” 지시
봉은사 “문화재영향평가 하라”
영동대로 개발 공청회 앞두고
환경영향평가 문제 지적 나와



영동대로 개발사업 조감도.

이 교수는 또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성, 인접성 측면서 볼 때 GBC와 영동대로 사업은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평가하다보니 환경현황과 평가가 축소되고 누락될 수 있다”며 “두 사업으로 인한 복합오염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으로 △조사기간 · 조사지점 · 조사횟수 축소 및 실측자료 부실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 고려 및 선택이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없음 △미세먼지와 지반침하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대책 없음 △문화재 보호대책 없음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서울시는 협치를 근간으로 한다면서 영동대로 사업에는 협치가 없다. 현재까지는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잘못된 관행과 추종만이 있다. GBC는 사상누각이 되고, 영동대로 사업은 두더지 집을 만드는 도심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증하자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통합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회복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도-개인 종교 열망 간극 커진다”

성해영 교수, ‘한국사회와 불교 10년 성찰’ 토론회서

종교인구 감소 두드러져도
종교콘텐츠 관심은 여전해
“근본적 차원서 정체성 모색”

전통 제도적 불교 외에 개인의 수행 · 영적 체험 등 이른바 ‘종교 밖의 종교’가 더욱 급속화로 성행할 것이며, 불교는 더욱 근본적인 전략으로써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이 도출됐다.

신대승네트워크 · 정의평화불교연대 · 불교환경연대 ·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한국사회와 불교 10년 성찰과 2025년 불교 미래 모색’ 1차 토론회를 6월 12일 안국동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한국 사회 종교지평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종교를 넘어선 종교’라고 지목했다. 즉 종교 밖에서 일어나는 종교성이다.

성 교수는 ‘10년 새 종교인구 감소(52.9%→43.9%) 및 무종교인 증가(47.1%→56.1%)’로 드러난 통계청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이것이 비단 종교 자체의 쇠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종교인의 비율도 낮아지고 특히 젊은층에서 종교를 떠나는 경향은 분명히 등장했지만 ‘영성’ 추구에 대한 움직임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화된 종교의 테두리 밖에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의식 변형의 체험과 영적 통찰을 얻겠다는 열망은 출판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성 교수는 불교명상 및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 증대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불교인구는 761만 9000명(15.5%)으로 10년 전에 비해 300만 명 감소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불교의 종교성이 나타난 일부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커졌다는 의견이다.

성 교수는 “이 현상은 제도로서의 불교와 삶의 의미 및 위안을 주는 불교적 가르침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명확히 드러낸다”며 “현대인들은 삶의 근원적 의미를 발견하게 도와주는 불교적 가르침을 제도로서의 불교와 일치시키지 않는 경향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는 종교 아닌 것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하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게 만든다.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제도나 조직 없이도 인간의 종교성은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의 대응맥락에 대해서 “제도로서의 불교보다 훨씬 더 장구한 역사를 지닌 가족 및 결혼제도가 불과 수십 년 사이에 급격하게 해체된 것처럼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의 정체성을 근본적 차원에서 물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불교 역시 이런 맥락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한구 경희대 석좌교수는 ‘세계화시대 문명의 융합과 전환’, 박병기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사회 변화와 가치변동’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신대승네트워크 등은 앞으로 3차 토론회를 거쳐 2025년 한국불교의 방향을 모색한다. 2차 토론회는 7월 3일 오후 3시 ‘흘러간 10년-떠난 300만, 받아든 성적표’, 3차 토론회는 8월 26일 오전 10시 ‘2025 미래불교,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주제로 개최한다. 장소 미정.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새집서 진각 100년 향해 전진하자”

6월 15일 진각종 총인원 성역화 회향 불사 기념법요식


진각종 총인원 성역화 불사가 10여년 간의 노력끝에 원만 회향했다. 진각종은 6월 15일 회향불사 기념식을 열고, 진각 100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천명했다.

대한불교진각종 총인원 성역화 회향 불사를 기념하는 법요식이 6월 15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 특설무대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서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기념사를 통해 “진각 100년을 향한 진언 행자들의 새로운 발심과 정진을 부탁드리며, 밀교중흥과 한국불교의 흥왕,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가발전을 서원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현정원장 법정 정사는 “이번 성역화 불사는 진각종 핵심 교리 중 하나인 비로자나불,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 등 오불을 총인원 터에 관하는 배치로 그 상징성을 가미한 것이다”고 불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법회에는 진각종 총인 회정 정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월도 스님(천태종 총무부장), 관음종 홍파 총무원장, 총지종 인선 통리원장, 대각종 만청 총무원장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진각종 총인원 중앙에 위치한 성역화 불사의 핵심 도량인 진각문화전승원은 2007년 전승원건립추진팀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으며, 연면적 12,076㎡(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2012년 12월 완공됐다. 진각복지사업의 중심역할을 할 진각복지센터도 연면적 4,430㎡(지하 2층, 지상 5층)규모로 2009년에 마무리됐다. 또한 2013년에는 성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진각문화국제체험관과 탑주유치원, 지하주차장의 건립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국제포교와 청소년 포교의 상징이 될 진각문화국제체험관은 연면적 5,663㎡(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이며, 지역 교화의 산실이 될 탑주유치원은 연면적 1,124㎡(지상 3층) 규모로 2017년 5월 완공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한불교진흥원, 제15회 대원상 공모

9월 11~29일, 포교대상 · 콘텐츠대상 부문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2017년 제15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접수 기간은 9월 11~29일이며,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해 후보자를 접수한다.

상금 총액 5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포교대상은 출가 · 재가부문에 대해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스님과 재가 개인 및 단체 3인(곳)을 선정한다. 또 상금 총액 4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콘텐츠대상은 불교미디어 영상포교 자원개발과 지원을 위해 불교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의 텍스트 · 이미지 콘텐츠분야 및 오디오 · 영상콘텐츠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접수희망자는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서류를 받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02)719-2606

대원상은 故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아래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해 시상하는 상이다.

윤호섭 기자

제1회 법계문학상 대상 수상작

신이산 장편소설

“한 화공의 예술혼과 사랑을 그린 한 폭의 변상도와 같은 소설”



푼다리카

값 13,500원

※ 본 도서는 전국의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2회 법계문학상 공모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한국 최고의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며 비구니 교육과 권익증진에 평생을 바친 ‘법계 명성스님’의 서원에 의해 제정된 ‘불교문학상’입니다. ‘법계문학상’은 역량 있는 불교문학 신인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장편소설과 장편동화를 공모합니다.

공모분야
공모분야 장편소설, 장편동화
공모주제 불교사상을 바탕으로한 자유로운 소재
공모분량 장편소설 200자 원고지 1,000매 내외 분량
장편동화 200자 원고지 500매 내외 분량

시상내역
대상 1작품 상금 2,000만원 및 상패
가작 2작품 상금 500만원 및 상패
※ 시상식 일정 및 장소 별도 공지

일정 및 방법
응모기간 2017. 10. 01 ~ 2017. 10. 25
응모자격 신인 또는 등단 7년이내 작가
제출서류 1. 작품원고 2부 2. 신청서 3. 자기소개서
※신청양식 및 자세한 응모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blog.naver.com/batistaff (NAVER 블로그 ‘법계문학상 공모’)

문의
Tel : 070-8880-8202 / E-mail : batistaff@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21,1101호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

※ 응모한 작품은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